

자기 조립 분자막의 표면파손특성 및 미세 금속 구조물 제작에의 응용

성 인 하, 김 대 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기계공학과

*연세대학교 기계공학부

Surface Damage Characteristics of Self-Assembled Monolayer and Its Application in Metal Nano-Structure Fabrication

In-Ha Sung, Dae-Eun Kim*

Dept. of Mechanic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School of Mechanical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Abstract - The motivation of this work is to use SAM(Self-Assembled Monolayer) for developing a rapid and flexible non-photolithographic nano-structure fabrication technique which can be utilized in micro-machining of metals as well as silicon-based materials. The fabrication technique implemented in this work consists of a two-step process, namely, mechanical scribing followed by chemical etching. From the experimental results, it was found that thiol on copper surface could be removed even under a few nN normal load. The nano-trib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iol-SAM on various metals were largely dependent on the native oxide layer of metals. Based on these findings, nano-patterns with sub-micrometer width and depth on metal surfaces such as Cu, Au and Ag could be obtained using a diamond-coated tip.

Key Words : Atomic Force Microscope, Lateral Force Microscope, Nano-structure fabrication, Thiol-SAM(Self-Assembled Monolayer)

1. 서 론

자기조립분자막(self-assembled monolayer, 이하 SAM)은 Chemical Force Microscopy[1], 리소그래피를 위한 리지스트[2], micro-molding/imprinting[3], 부식방지층[4], 나노윤활[5] 등 다양한 분야로의 이용가능성 때문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트라이볼로지 분야에서는 수 nm의 박막으로서 표면에너지가 낮고 소수성(hydrophobicity)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어서, MEMS(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등의 미소기계요소에 마찰 및 stiction 저감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7].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기조립분자막의 박막특성 및 리지스트 기능을 활용하여, 트라이볼로지적인 방법에 의해 빠르고 간단하면서도 저렴하게 금속표면에 나노스케일의 미세패턴 및 구조물을 제작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금속표면에 미세패턴을 제작하는 방법은 E-beam[8], electrodeposition[9], X-ray[10], LIGA[11] 등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패턴의 해상도는 우수하지만 리지스트에 대한 노출시간(exposure time)이 길거나 고가의 초기설비비, 프로세스의 복잡성 등 단점이 있

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금속위에 유기박막인 thiol-SAM을 형성시켜 이를 리지스트로 사용하여 기계적 가공으로 SAM을 제거한후 에칭으로 금속을 원하는 깊이만큼 제거하여 패턴을 제작하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thiol-SAM은 금속표면과 결합하는 thiol(-SH) group위에 alkyl(CH₂), biphenyl((C₆H₅)₂) 등의 탄화수소 사슬이 결합되고 표면 맨 위에는 terminal group으로서 -CH₃, -CF₃, -COOH, -NH₂ 등 각기 다른 특성을 갖는 여러 group이 존재할 수 있다[12]. 기계-화학적 가공방법은 이미 마이크로 패턴 및 형상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매우 빠르고 패턴설계변경이 용이하며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임은 기존의 연구를 통하여 입증된 바 있다[13,14]. 기계-화학적 가공방법을 나노패턴 및 형상제작에 이용하는데 있어서 좋은 표면품위를 얻기 위해서는 시료의 표면거칠기, 오염정도 등 시료표면의 물리/화학적 상태뿐만 아니라 유기 박막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최소하중(critical load), 에칭시간등의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thiol-SAM의 표면파손특성의 고찰결과와 이로부터 도출된 가공조건을 적용하여 다양한 금속표면에 제작된 나노패턴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실험방법 및 시편

Thiol-SAM의 표면파손특성을 보기위하여, AFM(Atomic Force Microscope)을 이용하여 scratch test를 수행하였으며, LFM(Lateral Force Microscope)를 이용하여 마찰력을 측정하였다. AFM tip은 diamond tip (radius~150nm, normal stiffness~0.26N/m) 및 Si₃N₄ tip (radius~20nm, normal stiffness~0.05N/m)을 사용하였다.

시편은 99.99% 이상의 Ag, Au, Cu를 각각 Si(100)위에 E-beam evaporation 또는

RF-sputter로 증착하여 사용하였으며, 각 시편의 사양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Specifications of specimens

Specimen	Metal thickness (nm)	Surface roughness (nm)
Ag/Si(100)	~ 200	~ 7
Au/Si(100)	~ 250	~ 3
Cu/Si(100)	~ 180	~ 0.8

Thiol-coated surface는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알려진 프로세스를 참조하여 대기중에서 thiol-ethanol solution에 dipping하는 방식에 의해 제작하였다[15,16]. 본 연구에 사용된 thiol은 n-alkanethiol (CH₃(CH₂)_nSH)중에서, n=6, 9, 15인 1-heptanethiol(이하 HT), 1-decanethiol(이하 DT), 1-hexadecanethiol(이하 HDT)을 사용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Thiol-coated surface의 nano-tribological 특성

Fig. 1(a)는 0.1 M HDT-ethanol solution내에서 30분 dipping에 의해 제작된 HDT/Cu surface를 diamond tip으로 각각 2, 3nN의 하중하에 1회 스크래치한 후 얻은 image이다. 이미지에서 보이듯이 2nN의 하중에서도 thiol이 제거되어, Fig. 1(b)에서 보듯이 스크래치된 부분에서 iron chloride etchant에 의해 Cu의 에칭이 일어나 실리콘의 드러남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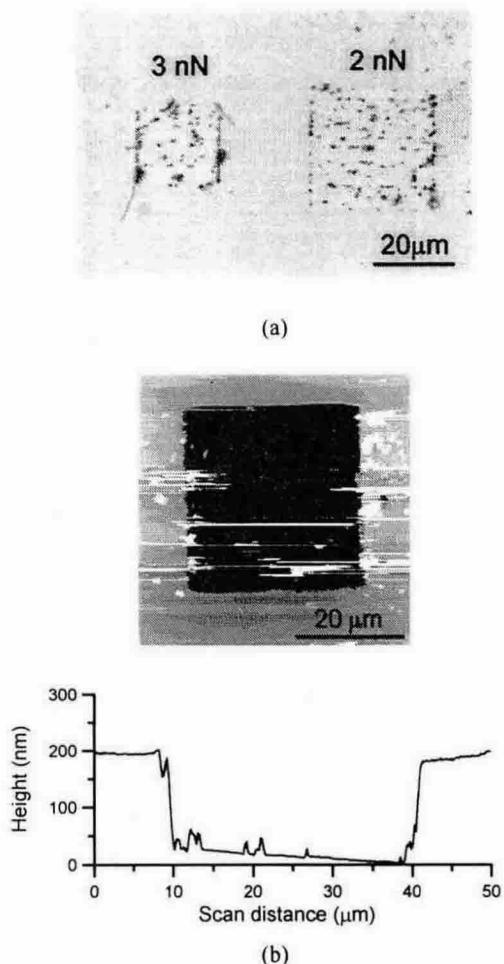


Fig. 1 Optical and AFM image of HDT-SAM coated Cu/Si(100) surface after (a) mechanical scribing (1 scan) and (b) chemical etching (region scratched under 2nN load)

반면, HDT/Au surface의 경우는, HDT/Cu와는 달리 수 nN의 저하중하에서는 수회의 반복스크래치에 의해서도 마멸입자나 스크래치 흔적 등의 표면파손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Fig. 2는 40 x 40 (μm) 영역을 diamond tip으로 1 μN 의 하중하에서 3회 반복스크래치한 후의 이미지로서, HDT/Cu와 비교할 때 표면파손이 잘 일어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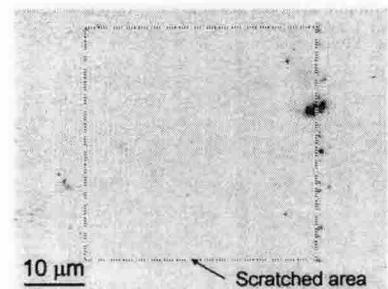


Fig. 2 Optical image of HDT-SAM coated Au/Si(100) surface after 3 scans under 1 μN using diamond tip

또한, 마찰특성에서도 Au, Cu에서 서로 차이를 보였다. Fig. 3은 Si_3N_4 tip으로 5 x 5 (μm)의 영역을 20 $\mu\text{m}/\text{s}$, 2 nN의 조건하에서 측정한 마찰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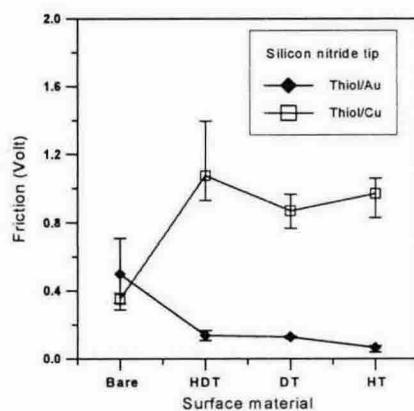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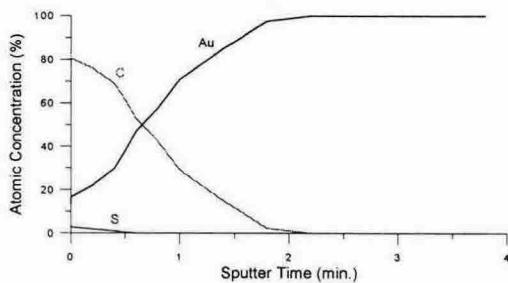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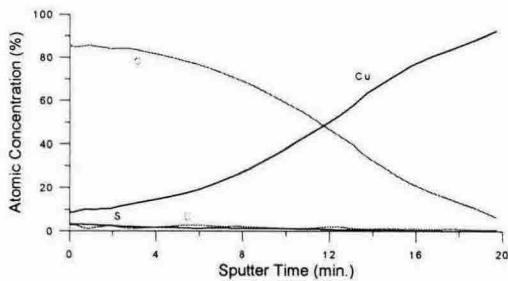
Fig. 3 Friction with respect to various thiols obtained for Au and Cu substrates

Fig. 3으로부터 대체적으로 alkyl chain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마찰력이 증가하며, Au에서는 bare surface에서보다 thiol-coated surface에서 마찰력이 더 낮게 나타나지만, Cu에서는 bare surface에서 오히려 더 마찰력이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Fig. 4의 HDT/Au, HDT/Cu에 대한 AES(Auger Electron Spectroscopy) depth profile은 이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준다.



(a) HDT/Au



(b) HDT/Cu

Fig. 4 AES depth profiles of HDT-coated Au and Cu surface (sputtering rate - 8 Å/min. in SiO₂)

Fig. 4의 AES depth profile로부터, Cu에서 Au와는 달리 thiol layer가 매우 두껍게 multilayer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Cu는 화학적으로 Au에 비해 oxygen에 훨씬 큰 반응성을 보이므로 대기중에서 생성되어 있던 Cu 산화막이 thiol과 반응하면서 thiol layer로 변화되어[17], 이에따라 Cu가 thiol layer내에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thiol-coated Cu surface에서는 thiol layer의 균질성이 감소하여 높은 마찰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Nano-structure fabrication

이와같은 thiol의 표면파손특성 고찰을 바탕으로 기계-화학적 프로세스에 의해 금속표면위에 마이크로 및 나노스케일 구조를 제

작할 수 있다.

Fig. 5는 500nm 간격으로 HDT/Ag surface 위에 제작된 폭 350~400nm, 깊이 약 120nm의 나노패턴의 AFM image이다. 또한, Fig. 6은 HDT/Cu surface 위에 750nm 간격으로 형성된 nano-grating의 이미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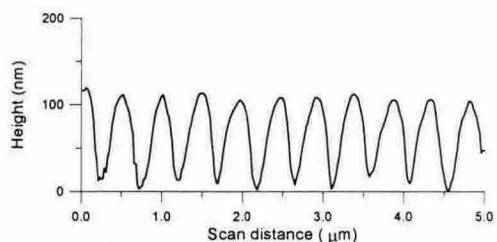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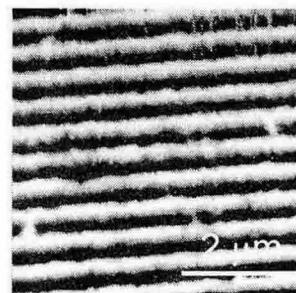


Fig. 5 Topography image and cross-sectional profile of nano-patterns fabricated on HDT/Ag surf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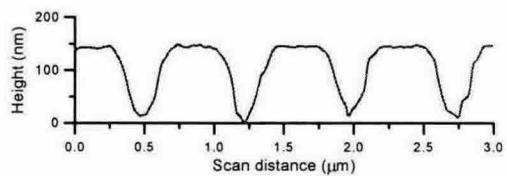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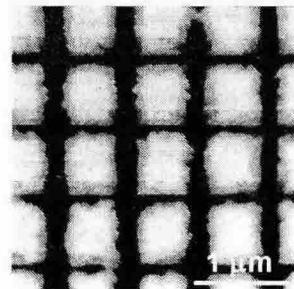


Fig. 6 Nano-gratings fabricated on HDT/Cu surface (grating spacing : ~750nm)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thiol-SAM의 나노트라이볼로지적 특성을 고찰하고 thiol-SAM의 표면과 손특성을 이용하여 기계-화학적 방법에 의해서 금속표면에 나노스케일의 미세구조를 제작하는데 응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

실험결과로부터, thiol-SAM의 표면파손특성 및 마찰특성은 금속산화막의 유무에 따라 크게 좌우됨을 알 수 있었으며, 기계-화학적 가공프로세스는 다양한 형태의 나노스케일 미세구조를 매우 빠르고 간단하게 금속표면에 제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사용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 기

본 내용은 과학기술부 21세기 프론티어 개발사업 중 “지능형 마이크로시스템 개발사업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 결과이며,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문헌

1. M. Fujihira, Y. Tani, M. Furugori, U. Akiba, Y. Okabe, Ultramicroscopy, 86 (2001) 63-73.
2. H.A. Biebuyck, N.B. Larsen, E. Delamarche, B. Michel, IBM J. Res. Develop., 41 (1997) 159-170.
3. T. Weimann, W. Geyer, P. Hinze, V. Stadler, W. Eck, A. Golzhauser, Microelectron. Eng., 57-58 (2001) 903-907.
4. G.K. Jennings, P.E. Laibinis, Coll. Surf. A, 116 (1996) 105-114.
5. R. Maboudian, W.R. Ashurst, C. Carraro, Sens. Actuat. A, 82 (2000) 219-223.
6. U. Srinivasan, M.R. Houston and R.T. Howe and R. Maboudian, IEEE J. MEMS, 7 (1998) 252.
7. M.N. Gardos, Surf. Coat. Tech., 113 (1999) 183.
8. T.R. Bedson, R.E. Palmer, J.P. Wilcoxon, Microelectron. Eng., 5758 (2001) 837.
9. W. Schwarzacher, O.I. Kasyutich, P.R. Evans, M.G. Darbyshire, G. Yi, V.M. Fedosyuk, F. Rousseaux, E. Cambril, D. Decanini, J. Magn. Magn. Mater., 198-199 (1999) 185.
10. W. Ehrfeld, H. Lehr, Radia. Phys. Chem., 45 (1995) 349.
11. W. Menz, Sens. Actuat. A, 54 (1996) 785.
12. A. Ulman, *An Introduction to Ultra-thin Molecular Films*, Wiley, New York, 1989.
13. J.M. Lee, W.H. Jin, D.E. Kim, Wear, 251 (2001) 1133.
14. J.M. Lee, I.H. Sung, D.E. Kim, Microsyst. Technol., 2002, In press.
15. Y. Xia, X.-M. Zhao, G.M. Whitesides, Microelectron. Eng., 32 (1996) 255.
16. J.L. Wilbur, A. Kumar, E. Kim and G. Whitesides, Adv. Mater., 6 (1994) 600.
17. H. Keller, P. Simak, W. Schrepp, Thin Solid Films, 244 (1994) 799.